

# “역사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강물”

재야 사학자 **이이화** 씨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는 생애에 불과합니다만 목소리가 크면 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학계·시민단체가 하나 돼 고구려사 수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1994년부터 10년에 걸쳐 집필한 <한국사 이야기> 22권을 지난 5월 완간해내고, 요즘은 ‘동학농민혁명 재단’ 발족 및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진상규명’ 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이이화(67)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동북공정(중국의 동북지역 역사·정세 연구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연성을 높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한다.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에 15만 군대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이 대군을 배치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반도 침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문은 민족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역사 기술에서 소외돼온 ‘민중’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내고, 기존의 정치·경제 중심의 기술에서 탈피해 생활사를 부각시킴으로써 역사 서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 ‘재야(在野) 사학자’다. 정규 역사학 교육을 받은 적도, 정식 교수도 아니어서 ‘재야’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다.

## “역사 바로잡기는 역사가의 본령” 어릴적 배운 법성계, 평생의 거울 아차산에 고구려 박물관 추진

<주역>의 대가로 꼽히는 아산(他山) 이달(李達·1889~1958) 선생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이 고문은 부친의 영향 속에서 성장했다. 유·불·선을 두루 섭렵한 최사 계열 선비였던 부친은 후천개벽 사상의 관점에서 <주역>을 이해했고, 융화세상을 꿈꾸던 인물이었다.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안면도 등지에서 직접 이상(理想) 공동체를 실험하기도 했다.

부친의 영향은 지대했다. 부친은 ‘학교에 가면 일본 놈 된다’며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한학과 불교학을 가르쳤다. 특히 ‘법성계’는 몽땅 외우게 했다. ‘법성계’를 통해 화엄 사상의 정수를 배우게 하려는 의도였다. 덕분에 이 고문은 글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법성계를 다 외웠다 한다. 어릴 때 외운 법성계를 70세를 바라보는 지금도 이 고문은 틈만 나면 외우며, 수양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하공 가득히 보배 비 내려 중생을 이익 되게 하나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이익을 얻는다(雨寶益生滿虛空 衆生隨機得利益)’는 구절을 좋아한다는 이 고문은 이 구절을 ‘성실히 노력한 만큼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역사 연구에 매진해왔다고 말한다.

이 고문은 또한 외래 문명을 거부하고 조선인이 살

아왔던 고유의 생활양식을 고수하며 비누·치약·약품·사진조차도 거부했던 부친의 ‘고집’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런 일이다 싶으면 절대 함께 하지 않고, 옳은 일이면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야 마는 이 고문의 고집과 열정은 부친에 못지않다. 이 고문의 민중사관도 부친이 가르친 후천개벽사상과 무관치 않다.

그밖에 큰 감화를 준 인물로 이 고문은 허균과 정조, 그리고 원효·의천·보조 스님 등을 꼽는다. 시대 모순 해결을 위한 허균과 정조의 의지가 존경스럽고, 개혁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어낸 원효·의천·보조 스님의 지혜가 값지기 때문이다. 무성한 개혁 논의 속에서 갈등만 커져가는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이 고문은 덧붙인다.

부친 덕에 어릴 적 맺은 불교와의 인연은 1964년 불교계 신문 ‘불교시보’에서의 기자생활로 이어진다. 공초 오상순의 추천으로 시작된 기자 생활 기간에 이 고문은 전국 사찰을 돌며 유적지를 돌아보며 취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이 무렵부터 역사학자로서의 꿈이 싹트기 시작한다.

식민지 경험과 분단 그리고, 독재 등 시대적 모순이 중첩돼 있던 60년대, 모순 타파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 고문은 주저 없이 역사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다. “저의 역사연구 화두는 개혁과 평등이었습니다. 특히 시대적 모순을 해결해나가는 지속적인 개혁이야말로 역사발전의 조건입니다.”

자연히 그의 역사학은 학문적 영역을 넘어 실천

을 지향했고, 아는 대로 실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올곧은 성품대로 역사의 그늘진 곳을 조명해 양지로 끌어올리는 짓같은 일을 도맡아 했다.

지금 그가 매달리고 있는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 ‘동학농민전쟁 재단 발족’ 등의 활동은 그 가운데 일이다.

이처럼 실천이 뒷받침된 참된 역사학으로 후학과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고문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부인 김영희(55) 씨의 마음은 안쓰럽기만 하다. “자기 것 행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가진 것 내어 놓으며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남편의 욕심 없는 마음만큼은 존경스럽다”고 말한다. 역사연구밖에 모르는 외갓 남편의 결을 묵묵히 지켜온 김 씨는 20년간 불교를 믿어온 독실한 불자다.

현재 이 고문은 ‘고구려 역사문화재단’의 대표로서 구리 아차산 일원에 고구려박물관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국회 내 과거사진상규명특위 설치를 반대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국회 안에 과거사진상규명특위가 설치되면 정치 논리에 휩쓸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산적한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이 고문은 다시 ‘잡작’ 해서 역사서 집필에 몰두할 계획이다. “바른 역사를 쓰는 것이야말로 역사가의 의무며 역사가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산적한 일들이 마무리되면 다시 잠적해서 역사서 집필에 몰두할 계획이라는 이이화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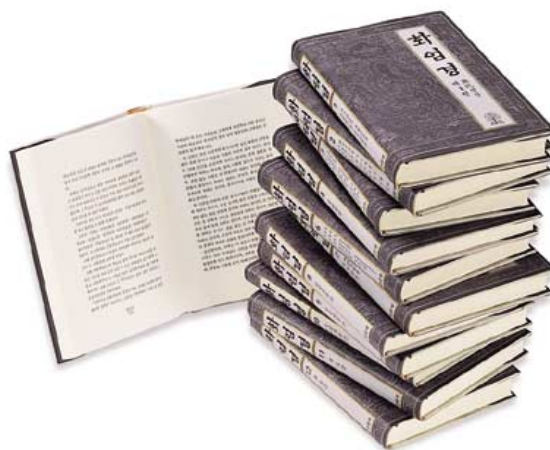
##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80권本 화엄경의 완역판 드디어 재간행!

# 無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無比)큰스님께서 완역한  
『한글 화엄경』(12권)이 품절된지  
10년만에 드디어 재간되었습니다!

3만명의 불자가  
이미 『한글 화엄경』을 모셨습니다!



###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에 대한 언론의 격찬!

- 대승불교의 최고의 경전인 華嚴經이 無比스님(前범어사 講主)에 의해 한글로 完譯됐다. 도서출판 민족사가 최근 펴낸 『한글 화엄경』(전12권)은 善財童자의 구도과정을 그린 入法界品을 비롯해 80권本 화엄경 전 40품을 모두 한글로 옮기고 뒤에 원문을 붙여 대조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경전의 긴 내용을 단락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조선일보 1994년 간행당시 -

- 최근 간행된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은 단순한 번역이 아닌 경전의 치밀한 내용 파악으로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잘 읽히도록 번역편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신문 1994년 간행당시 -

###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 ① 80권本 화엄경(전40품)의 완역판.
- ②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 ③ 중국 天童山판 80권本 화엄경 원문 수록
- ④ 상세한 단락구분과 소제목이 첨부되어 내용 파악이 용이함.

**구입방법** ① 특가: 전 12권 220,000원 ② 신청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③ 송금방법: 아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십시오.  
국민은행 006-01-0773-002 윤계승 외환은행 059-18-17838-6 윤계승  
농협 053-02-109450 윤계승 조흥은행 390-01-033705 윤계승

도서출판 **민족사** 우편번호 110-130 서울 중로구 청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E-mail: minjoksa@chollian.net